

SUNBO NEWS

PLUS2020 |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명품 모듈 생산 초우량 기업

2018년 6월 15일

vol. 173

since 1986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80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주요 소식

월드클래스 300 선정

‘초우량 LNG 모듈 유니트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



5월 15일 우리 회사가 '월드클래스 300(World Class 300, 이하 WC 300)'에 최종 선정되었다. WC 300은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견·중소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로,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259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41개사를 추가해 목표했던 300개 기업에 도달했다. 이로써 우리 회사는 향후 5년간 연간 최대 15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 및 최대 7500만 원의 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선정된다는 것은 회사의 비전 및 중장기 성장전략에 대해 대외적 공신력을 갖게 되어 회사의 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총 10년간 R&D, 해외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금융부담 등에 다양한 연계시책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WC 300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출액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과 R&D 투자비중, 매출성장률 등 까다로운 신청조건을 통과해야 하며, 중장기 '성장전략서'를 통해 글로벌 컴퍼니로서 선보가 지닌 지속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을 스스로 증명해내야만 했다.

우리 회사는 기술연구소 장호길 이사의 총괄 지도 아래 재무팀, 국내/해외 영업팀, 개발팀, 사업기획팀, 그리고 HRD팀이 일찍이 TF를 구성하여 여섯 개 분야별(기업성장과 사업현황, 비전 및 중장기 목표, 글로벌수출확대전략, 핵심기술확보전략, 투자전략, 경영혁신전략)로 충실히 대비하여왔다. 수많은 조선해양 관련 업체들이 이미



LNG 분야 시장의 성장에 대해 주장하여왔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논리로는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웠다. WC 300의 핵심은 수출 지향성에 있으므로 신규 품목 개발, 거래선 확장, 수출계획 등 향후 우리 회사의 주력제품이 될 WTS(Water Treatment System), FGSS(Fuel Gas Supply System), PRS(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등을 중심으로 미래 주력 제품별 핵심기술이 국가기술로드맵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초우량 LNG 모듈 유니트 글로벌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지난달 한국 최초로 알루미늄 압력배관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인 '콜드 박스(Cold Box)'를 한화토탈에 납품하는 등 우리 회사의 뛰어난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향후 '성장전략서'를 통해 제시했던 중장기 경영전략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우리 회사는 WC 300 선정에 만족하여 안주하기보다 기업의 최종 목표인 '초우량 LNG 모듈 유니트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앞으로도 기술 확보 목표 및 필요자원과 역량확보 방안을 충실히 실행해나갈 것이며,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을 경주하여 명실 공히 World Class 기업, 한국형 히든챔피언에 빠르게 다가갈 것이다.

방문

고용노동청장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 공유



정지원 부산노동청장과 지역협력팀 신종범 팀장이 부산조선산업현장 시찰을 목적으로 6월 7일 우리 회사를 방문하였다. 오전 11시쯤 본사를 방문한 정지원 노동청장 일행은 첫 일정으로 홍보관 및 설계사무실 등을 둘러보며 우리 회사의 사업현황을 소개받았다. 이어 의전실에서 최금식 회장을 비롯해 선보엔젤파트너스 최영찬 대표, 정호경 전무, 서재욱 상무, 김진우 부장, 김상진 차장이 배석한 가운데 선보의 HSE 활동에 대하여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최근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안전진단 컨설팅' 결과를 보고하고, '임원 안전점검의 날 지정', '안전실천 결의대회 개최' 등 최근 우리 회사가 실시한 안전점검 강화 활동들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정지원 부산노동청장은 우리 회사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및 강화된 안전 활동에 대하여 깊은 공감 및 격려를 표하며 "편하고 익숙한 것에서부터 좀 더 불편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는 재해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만큼 노사가 함께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마음속으로 항상 선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보의 모든 임직원들이 애써셨던 기술개발 부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선보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격려하였다.

회사 소식

Burckhardt Compressor Package VE 활동 진행



우리 회사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선보유니텍 구평1공장에서 스위스의 압축기 전문 기자재 회사 Burckhardt사의 수주 물량에 관한 전반적인 VE(Value Engineering) 활동을 실시하였다. VE란 불필요한 원가를 밝혀내어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비용절감 및 시설물 성능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여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이다. Burckhardt 스위스 본사 및 한국지사의 프로젝트 참가 인원 19명이 참석하였고, 우리 회사 측에서는 사업기획부 김청옥 상무 외 8명의 담당자가 참가하여 정보를 교류하였다.

이번 VE 활동은 Burckhardt사의 최대 이벤트로서, 이 활동의 투자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인 일정은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일정으로 우리 회사(Packager 공장)를 방문하여 낭비요소 제거, 원가 절감 방법 및 공정개선 방향 등을 찾아내는 Red Tagging 작업을 마쳤으며, 선보의 임직원들은 VE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일정은 스위스 Burckhardt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1차 일정에서의 Red Tagging 작업을 검토 및 분석하여 실질적인 원가 절감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이번 VE 활동을 통해 양사 간의 협력으로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VE 활동이 계기가 되어 향후 더 많은 제품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 및 우수한 품질 확보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다.

교육

선보엔젤파트너스(주) 신규 입사자 교육



6월 7일 선보엔젤파트너스(주) 소속 임직원과 신규 입사자 등 19명이 신규 입사자 교육을 위해 우리 회사를 방문하였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지난 2016년 지역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투자사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인 '팁스'의 운영사로서 UNIST, GIST 등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투자 대상 창업기업 멘토링 및 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등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진행 중이다.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신규 채용을 통해 9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8명을 더 채용하였다.

이날 방문에는 입사자들을 격려하고자 최영찬 대표를 포함한 선보엔젤파트너스사의 전 직원이 동행하였다. 아침 일찍 구평1공장에 도착하여 구평공장, 다대2공장 순으로 공장투어를 진행한 방문단은 마지막으로 본사를 방문하였다. 본사에서는 4층 교육실에서 '전산 및 직장 내 정보보안 방법'에 대한 전산팀 안정빈 팀장의 교육을 시작으로 영업 1팀 유무성 부장의 '조선시황 및 주력제품 현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점심식사 후 선보패밀리 현황에 대해 소개받은 방문단은 이어 홍보관을 둘러보았고 의전실에서 최금식 회장님과 티타임을 가졌다. 시종일관 화

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된 티타임 후 사업기획부 김청옥 상무의 '조선플랜트 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교육을 마지막으로 이날 방문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신규 입사자들이 선보패밀리로서 소속감을 쌓을 수 있었기를 바라며, 신성장동력 확보의 주체로서 선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내복지

2018 부산하프마라톤대회 참가



선보패밀리 임직원은 지난 5월 13일 다대포 일대에서 실시된 '2018년 부산하프마라톤대회'에 참가하였다. 국제신문이 주최하고 BNK부산은행이 함께하는 해당 대회는 하프코스, 10km, 5km 코스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우리 회사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총 68명이 각 코스에 고루 참가하였다.

대회 당일 오전 8시, 마로 마련된 선보공업 부스에 모인 참가자들은 마라톤 기념 티셔츠와 이름표를 배부받아

대회 준비를 하였다. 대회는 8시 30분부터 5km, 10km, 하프 코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코스를 달린 참가자들이 올해도 무사히 완주하였다. 경기 후에는 삼삼오오 모여 준비되어 있던 김치전과 편육으로 체력을 보충하고 오랜만에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며 동료애를 돈독히 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마라톤대회에 처음 참가했다는 설계 2팀 김동현 신입사원은 "고종현 대리님의 추천으로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반환점 지점부터 힘이 들기 시작했는데, 반대편에서 저를 보고 응원해주는 선보패밀리를 보며 힘을 냈습니다. 1km 남은 지점에서 지쳐 걷고 있을 때에는 오창배 과장님께서 함께 뛰자며 북돋워주셔서 마지막까지 함께 달렸습니다. 선보패밀리 여러분 덕분에 완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을 몸으로 느낀 경험이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안전

2018 선보유니텍 안전결의대회 실시



지난 5월 31일 우리 회사는 선보유니텍(주) 구평1공장에서 최금식 회장, 최상식 사장, 김상도 고문, 사공운곤 부사장을 비롯한 선보유니텍 전 임직원 및 협력사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선보유니텍(주) 구평공장 합동으로 열린 이번 안전결의대회는 최근 선보유니텍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를 반성하고 안전 의식을 더욱 확고히 고취하여 관리자와 작업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우리 회사는 환경·안전·보건(H.S.E) 방침을 경영의 기본 요소로 삼고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및 OHSAS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과 보건 및 환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매주 월요일 '전사안전점검의 날' 지정 및 분기별 '중점테마점검', 매주 목요일 '임원 안전점검의 날'과 같은 다양한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이행하며 안전의식 재고의 기회 또한 마련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안전에 관련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는 점을 돌아보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임직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 자리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선보패밀리는 12대 안전수칙을 작업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선보의 작업장 환경에 걸맞은 내용으로 수정한 '7대 안전수칙'을 선포하였다. 또한 구평1공장은 백병호 전무, 구평공장은 김진우 부장을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하고 품질 및 생산관리직과 협력사 소장들을 안전관리감독자로 임명하여 관리자들이 안전에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였다.

최금식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현재 선보패밀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되짚으며 안전에 관련한 조금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공포하였다. 더불어 안전·보건·환경이 생산효율과 성과의 뒷전에 밀려나지 않는 최우선 경영철학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무재해의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자고 당부하였다.

안전

선보인의 7대 안전수칙

- 1. 작업현장 출입시 반드시 안전보호구 착용**
 - 현장출입자는 반드시 안전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를 착용한다.
 - *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의무화
- 2. 작업 시종 30분 전 [조업전후/점심전후/퇴근전후] 작업장 위험요소 사전발굴 및 사고예방**
 - 생산관리자는 작업현장에 미리 나와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안전조치한다.
- 3.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 안전통로는 안전으로 가는 길임을 명심하고 언제나 확보, 유지한다.
- 4. 모든 근로자는 배치 전 안전교육 의무실시**
 - 작업장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5. 사전 작업허가 규정 준수**
 - 밀폐공간, 화기, 도장, 정전, 고압, 퍼징(알곤) 작업 시 부서간 사전승인 후에 HSE 최종확인을 받는다.
- 6. 밀폐구역 출입시 산소농도 측정**
 - 밀폐공간 출입 시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를 철저히 이행한다.
- 7. 안전장치 임의해제 금지**
 - 양중기(크레인), 운반기(지게차, 고소차), 전기설비(용접기), 공작기계(그라인더) 등 안전장치를 임의해제 하지 않는다.

작업현장 출입시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작업의 종류에 따라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대**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정전기의 대전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회공헌

부산의료원 수액걸이 기증



우리 회사는 5월 17일 부산의료원(원장 최창화)에 환자용 수액 걸이 30개를 기증했다. 이날 기증한 물품들은 보다 쾌적한 치료 서비스 제공과 환자들의 재활 및 보행 환경 개선 등 의료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부산의료원은 일반병원이 시행하기 힘든 공공의료서비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무연고, 무의탁 환자를 위한 공익병상과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의료는 인간의 생존기 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의무로, 특히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우리 회사는 부산지역 공

공의료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부산의료원을 10년 넘게 지원해왔으며, 지난해에도 공익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개인 위생용품 200만 원 상당을 기증한 바 있다.

교육 지원, 연탄봉사, 헌혈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 회사는 이번 기증을 계기로 의료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헌활동 역시 활발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교육

아침특강 “인문학으로 힐링하다”



5월 아침특강이 5월 9일과 10일 양일간 본사 및 구평공장에서 실시되었다. 선보가족들은 ‘그림으로 만나는 호메로스의 인문학’이라는 주제의 인문학 강의를 통해, 서양문화의 원형인 그리스신화를 바탕으로 탄생된 명화를 알아보고 그 명화 속에 담긴 다양한 삶의 모습과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강의를 맡은 ‘문화공간 빈빈’의 미학미술사학자 김종희 강사는 우리에게 친숙한 스타벅스 CI, 나이키, 박카스, 세이렌, 트랜스포머, 아모르파티 등의 어원을 예로 들며, 명화로 재탄생한 신화들이 어떻게 현대적 의미로 각색되어 기업 이미지(CI), 영화, 제품 브랜드

명, 대중가요 등에 반영되고 있는지 재미있게 풀어주었다. 또한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문학의 가장 오래된 서사시 호메로스의 대표작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이면을 소개하는 한편, 인간의 욕망, 감각에서 오는 갈등·위기를 절제·극복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훈을 주었다.

『오디세이아』의 오디세우스는 모든 모험을 마치고 20년 만에 돌아와 부인에게 말한다.

“우리는 아직 모든 고민의 끝에 도달한 것이 아니오. 앞으로도 헤아릴 수없이 많은 노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많고 힘들더라도 나는 그것을 모두 완수해야만 하오!”

현실 문제, 혹은 도전 과제가 지금 당장은 벅찰지도 모른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새로운 꿈, 그리고 도전은 결국 우리 선보패밀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줄 것이다. 모처럼 진행된 인문학 강의가 다양한 삶 속에 담긴 가치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나누는 글

감사의 위력



혹인 최초로 국무장관이 된 뉴욕 빈민가 출신 콜린파월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는, 어느 날 다른 인부들과 함께 도랑 파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일을 하던 중 한 동료가 삽에 몸을 기대고서 회사에서 임금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며 불평하였습니다. 그 옆의 다른 동료는 묵묵히, 그저 열심히 도랑을 팠습니다. 몇 해가 지나 다시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을 때, 불평을 하던 사람은 여전히 그때 그 자세로 삽에 몸을 기대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다른 동료는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지요. 또다시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다시 찾은 공장에서 불평하던 직원을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원인 모를 병으로 장애인 이 되어 회사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었죠.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놀랍게도 그 회사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파월의 인생에 큰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행복은 결국 감사에 비례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몫에 대하여 불평불만하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사를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요.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그 불평의 열매를 따먹게 마련입니다. 반면 감사는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가져올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행복을 배가시킵니다.

신록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는 계절입니다. 미소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게 어떨까요. 푸른 하늘의 넉넉함을 닮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 ☑ 본사 이지영(6.08) 정현교(6.06)
김영관(6.10) 이수진(6.12)
이현우(6.12) 김지상(6.30)
이지혜(음6.04) 최금식(음6.14)
- ☑ 1공장 김동섭(6.01)
- ☑ 2공장 양수원(6.13) 김영자(6.25)
- ☑ 3공장 정남교(6.05)
- ☑ 구평공장 김용수(6.08) 천병철(6.28)
이창복(음6.23)
- ☑ 구평1공장 박성준(6.11) 김봉수(6.12)
허 석(6.12) 김광호(6.15)
김은식(6.18) 조연주(6.20)
신명환(6.22) 공민식(6.23)
진영덕(6.25) 김동국(6.26)
김영복(6.28) 신상섭(6.28)
- ☑ 영암공장 이규현(6.07) 박성철(6.10)
최소연(6.11) 오세준(음6.25)



임사 기념일

- ☑ 본사 안정빈(6.03) 장철민(6.09)
박귀남(6.18) 이무호(6.29)
- ☑ 1공장 김동섭(6.01) 김대관(6.09)
안태주(6.19) 산토스(6.28)
- ☑ 2공장 박을순(6.01) 김종민(6.02)
- ☑ 구평1공장 강경훈(6.01) 교 녕(6.01)
김경연(6.01) 김대중(6.01)
김영민(6.01) 문기철(6.01)
알 리(6.01) 위경군(6.01)
이영춘(6.01) 장여국(6.01)
최영운(6.01) 화화정(6.01)
후쭈지에(6.01) 박정은(6.09)
홍자령(6.10) 서상태(6.12)
김영철(6.22) 허원범(6.24)
김진우(6.25)